

# 변혁의 시대와 철학의 사명

## 대중을 위한 철학책, 왜 붐인가

김광수

한신대 교수 · 철학

### 철학책들의 홍수

경험론적 결벽주의로 형이상학의 사망을 선고하였던 근세철학자 흄은, 후일 칸트를 독단의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할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자신의 「人性論」이 “대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다”고 비통하게 회고하였다. 흄의 경우는 근세의 지적 풍토 탓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흄보다 정확하게 100년 후에 태어난 현대철학의 대부 비트겐슈타인도, 철학의 모든 문제들에 ‘끝장’을 보고자 했던 그의 의지 못지 않게 현대철학에 끊임 없는 영감을 불어넣어준 그의 「논리철학논고」를 출판하고자 했을 때, 출판사를 구할 수 없었다. 당시에 이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던 러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원고료는커녕 종이값도 뺄 수 없을만큼 ‘인기없음’ 그의 「논고」는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학책은 그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았고, 일반독자와 유리되어 있었다. 서점이나 도서관의 한 구석에 구석을 맞추듯 몇 권의 철학서적들이 꽃혀 있긴 했었다. 그러나 철학개론 강좌의 교재가 아니면, 철학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기껏해야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장식용에 불과하였었다. 철학은 범인이 접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고상한’ 또는 ‘괴상한 학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철학책들이 잘 팔릴 리 없고, 잘 팔리지 않을 책을 찍어낼 출판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철학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름도 알 겨를 없이 생겨나는 출판사들이 앞을 다투어 철학책을 찍어내고 있으며, 그 책들이 팔리고 있고 또 읽히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안경알 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스피노자를 비롯한 가난하고 외로웠던 철학의 조상들이 만일 지하에서라도 알게 된다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을 철학책의 홍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아울러 격동의 시대를 사는 철학적 지혜를 음미해 보기로 하자.

### 철학, 구름에서 땅으로

세계적으로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의 「The Economist」지는 얼마전에 (19

86년 4월 26일) ‘철학 구름으로부터 내려오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도대체 경제전문지가 철학에 대해 장장 4면에 달하는 글을 실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내용이었다. 철학이 ‘뜬구름잡는’ 일을 그만두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주로 미국의 예이긴 하지만,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철학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는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병원에서 철학자를 고용한다. 안락사나 낙태와 같은 의료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일반적 물음에 대해 철학자의 답을 얻기 위해서다. 의회에서 철학자를 고용한다. 입법활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까다로운 문제의 분석을 맡기기 위해서다. 기업체들도 철학자를 고용한다. 기업윤리, 공해, 소비자관리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달할 적임자로 철학자가 지목된 것이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해당하는 법과대학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법과대학에서 가장 환영하는 학생은 철학과 졸업생이라고 한다. 인간과 사회는 물론 세계와 우주의 비밀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거치면서, 치밀한 논리와 분석의 기법을 터득한 철학과 출신 이상으로 법을 잘 다루고 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응용’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이다.

철학이 단순한 응용의 차원에서만 그 모습을 달리한 것은 아니다.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입히고 있고, 또 발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뉴턴 물리학의 절대적 시간개념을 버리게 된 것도 흄과 마하의 철학서를 읽은 덕분이었다. 현대 문명의 총아인 컴퓨터도 프래게에서 시작하여 러셀과 화이트헤드로 이어지는 현대기호논리학의 부산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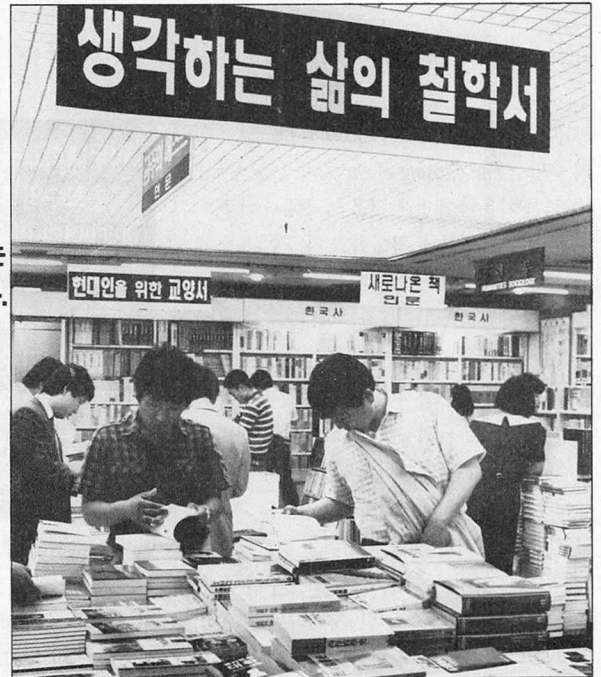
컴퓨터의 등장은 예부터 철학자들이 꿈꾸어 왔던 인조인간의 제조를 서두르게 하고 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인간과 구분할 수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만일 그러한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인조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어떤 대답이 나오든 인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컴퓨터 과학자는 인조인간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기계가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지고 있는 철학서 홍수사태는 철학의 세속화로 표현되는 세계적 조류와는 무관하다. 우리가 목격하는 철학서 홍수는, 변혁의 시대가 제공하는 엄청난 지적 모험과 혁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와 체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에 익숙한 사람은 철학자인 것이다. 그래서 인조인간의 제조에 철학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 인간을 인조인간과 유사한 기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인조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에 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원래 모든 과학적 탐구에 대한 총칭이었다. 전통적인 철학의 관심은 그만큼 포괄적이었다. 생존하고 있는 미국의 철학자 콰인의 말처럼, 철학과 과학의 경계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학문의 분화현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현대에 와서 분가해나간 여러 분과학문들이 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인간 정신현상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탐구에 현대과학의 주제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철학과 심리학은 물론, 뇌과학 · 뇌생리학 · 물리학 · 컴퓨터학 · 인공지능학 · 언어학 · 사회학 등이 머리를 마주하여, 인간의 정신현상에 관한 서로의 학문적 성과를 주고받고 공동으로 연구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인지과학’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학문이 벌이고 있는 일종의 ‘종합과학’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철학이 이미 ‘뜬구름잡는’ 학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관여하여 작용하는 ‘땅 위의’ 학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철학이 전문가들만의 것이



대중을 위한 계몽적 수준의 철학책들이 8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아니라, 일상인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세속화’현상은 영국 경제학자가 본 세계(특히 미국) 철학의 좌표이지, 한국의 그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철학의 세속화 현상이 보이고는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철학서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고, 또 읽히고 있다. 철학, 심리학, 전산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인지과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 공동연구를 벌이고도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철학의 응용이 꽤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작금의 철학서 홍수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철학서 홍수사태는 우리 사회에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 변혁과 철학

여러가지의 철학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혁의 시대’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이상과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고, 벗어던져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시대를 변하게 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이 다시 피드백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사고를 변하게 하는 역사적 드라마가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 엄청난 지적 모험과 혁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와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철학

서적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지적인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베이컨이었다. 형이상학적 허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흄을 비롯한 경험론적 전통의 철학자들이었다. 다신교적인 '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유일신'이었다. 유일신이고 뭐고, 일체의 종교적(특히 기독교적)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니이체였다. 노예의 해방을 외친 것은 링컨이었다. 자연의 거친 손길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과학자들이었다. 신성시되던 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꿈꾸는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또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맑스였다. 그리고 그는 '해방전선'의 최전방에 철학을 두었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하게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포이에브라하에 관한 테제)

인간성의 실현을 저해하고 억압과 굴종을 미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사상, 이념, 제도, 체제, 전통, 습관...등이 우리의 삶을 오도하게 내버려 둔 채, 세계를 해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들이 지배할 수 없도록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의 대오에 철학이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부터 장장 18년에 이르는 박정희정권의 '경제발전이념'과 '반공이념'이 정권연장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가 암살당하기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변혁'의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광주민주화항쟁에서 울렸으며, 학생·지식인들을 필두로 한 민주세력들이 투옥과 해직과 죽음을 마다 않고 허상의 타도에 임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가치체제와 신념의 체계는 허무하게 무너진다. 여지껏 높이 떠받들던 권위가 순식간에 시궁창 속으로 곤두박질한다. (현대사 속의 권위의 붕괴는 기실 박정희의 하극상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존경의 대상이 하루 아침에 발길질을 당하고, 아름답게만 여겨지던 '미덕'이 어느 사이에 위선과 악덕의 이름으로 헌신짝처럼 내던져진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간덩이가 유난히 크다는 것 외에는 전혀 평범한 인간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노동자는, 그렇게 우러러 보던 사장이 자신의 임금을 착취해온 악덕 기업인이고, 권력에 빌붙어 돈벌이를 위해서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6·25의 포성을 들어 보지 못한 세대는, 공산주의자가 자기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참교육'보다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거짓 교육으로 제자들의 정신풍토를 황폐케 했다고 자성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이 운명이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분노가 솟아오르고, 자신의 삶이 표류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가슴을 불태운다. 자신의 삶이 표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사회의 변혁이 없이는 개인의 삶을 온전히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변혁에 몸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래서 '혁명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혁명가'들과 더불어 '혁명을 위한 철학서'들이 앞을 다투어 유행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비밀이 없는 시대이다. 정보의 공유시대이다. 정보에 관한 한 철학자들이 이상사회의 첫걸음으로 제시하던 '자아의 확대'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기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스스로 변혁하지 않으면 변혁당하게 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고 혼자만 잘 먹고 살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유교, 기독교 등의 가르침이 체질화되어 있고, 정치가들의 농간, 어용교육자들의 꼭두각시 놀음이 그토록 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경이로운 일이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혼란과 아노미현상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볼

때, 그 공의 상당한 부분은 소위 '사회철학' '사회과학' 또는 '해방신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마르크스 등의 혁신적 주제를 다룬 책들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책들이 없었더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토록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디오게네스의 통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아쉬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적 우상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우상을 때려부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념이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적 폐쇄성이 가슴을 섬적하게 하기 때문이다. 변해야 할 부분만 변화시키고, 오히려 소중하게 간직할 것을 간직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화보다는 극한투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순수한' 혁명의 자세인듯 오인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구성은 어느 사이엔가 사랑과 이해와 화평의 자리에 증오와 오해와 분쟁이 들어서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일 터인데, 살기 싫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일들이 흔히 눈에 띄고 있다.

변혁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인 변혁과 방법론적인 오류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를 사는 철학적 지혜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운 물음이다. 그러나 알렉산더대왕의 入關 요청을 거절하면서 햇볕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奇人 디오게네스의 '통굴리기' 이야기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날 전쟁이 터져 급기야는 디오게네스가 사는 마을에까지 침략군이 쳐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저기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피의 제전이 벌어지고, 약탈과 강간으로 온 마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그때 매우 진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디오게네스가 통을 굴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잠자리인 통을 마을광장을 가로질러 굴리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본 그의 친구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차네 통을 왜 굴리고 있는 겐가? 디오

게네스가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분주히 돌아가는데, 나라고 가만 있을 수 있나. 나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 이야기는 후일 철학자들의 비현실성을 고발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인용되곤 하였다. 물론 별을 보며 걷다가 개굴창에 빠지는 철학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는 판에 통을 굴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위인 듯하다. 마을을 짓밟은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외국에게 당하고 있는 친구의 부인을 구출하든지, 그도 안되면 삼십육계를 놓아야 할 판국에 통을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행위였다.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행위였다.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철학자들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행위였다. 역사적으로 그 의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속한 현대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역사적 장들을 꿰뚫어 보며 장식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몸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고 뜯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덮치고 덮침을 당하고, 약탈하고 약탈당하는, 매우 '구렁뚱한' 짓거리들을 비웃고 있었다. 너희들 잘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한다면, 나도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통굴리기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마을에 벌어진 소동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소리쳐 소동을 멈추게 하려 하였다면, 죽임을 당할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통속에 살고 있었지만,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통을 굴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철학적' 몸짓이었다.

변혁의 시대를 사는 실존적 지혜는 분명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는 일이기 때문이며, 잘하면 모두가 살아남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혁의 시대를 사는 철학적 지혜는 디오게네스의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시대는 바뀐다. 그러나 모든 변화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을 지키는 철학적 지혜를 간직해야 할 것이다.